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 수요 기도회가 저녁 7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 금요 중보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장소 및 기타 문의: 김영순 권사).
- 청소년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가 오는 28일(토) 10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 10월 연합 목장 모임이 오는 28일(토) 1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 다음 주 예배 후 정기 집사회로 모입니다.

[알림]

- 공동체 성경읽기 365 플랜 제 43 주 차
- 10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교회 홈페이지).
- 10월 31일(화) 교회학교 홀리윈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증 및 후원을 받습니다(성경, 신앙서적 등).

[중보기도(기도제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회복을 위해 : 김정현, 김현희, 장문수(장은정), 장정운
- 10월의 기도제목을 위해
-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모로코를 위해, 홍수 피해를 입은 리비아를 위해

10월 기도제목

-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의 영적, 질적, 수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 ◆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
- ◆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위해
- ◆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 ◆ 자녀들의 신앙, 인격, 건강, 학업, 만남, 비전을 위해
- ◆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위해
- ◆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 ◆ 장종섭 교육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
- ◆ 김창섭, 양영창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과 자녀를 위해
- ◆ 10월의 목회일정(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추수감사주일, 성경 아카데미, 리더 양육, 목자 교육, 목장 모임, 문화사역)을 위해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 Zoom
어린이예배	오후 2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오후 1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저녁 7시	본당 / Zoom
금요 중보기도회	저녁 7시 30분	지정 장소
성경아카데미	지정 시간	교회 / Zoom
목장모임	지정 시간	지정 장소

10월 목회계획 (감사의 달)

8일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한 마음 예배
28일(토)	연합 목장 모임, 오후 12시, 교회
31일	홀리 윈 데이 Holy Win Day
	리더 양육, 목자 교육, 문화 사역

10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친교
1일	류성주	오세봉	김성실
8일	김성실	전남형	추수 감사절
15일	김현희	김재연	여선교회
22일	김영순	김준희	류성주
29일	임혜영	장문수	김안나

지난 주 헌금 통계 (E-transfer: edmkbc@gmail.com)

항목	통계
십일조	65.00
감사헌금	100.00
주정헌금	590.00
선교헌금	0.00
기타헌금	0.00
계	755.00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권성범  
반 주 : 김안나  
방송담당 : 김태빈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두고 돌랐나이다 어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라내시옵소서 이는 중매라도 공물을 함께 마옵소서 (삼 7:2)

2시

*경배와 찬양	115.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33.눈을 들어 주를 보라 121.이 땅 위에 오신 23.임제	다같이
*예배의 부름	시 47:6-7	인도자
*찬송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같이
대표기도		김영순 권사
성경봉독	히 3:1-18	김준희 집사
말씀선포	히브리서 강해(5) 거룩한 형제들아	권성범 목사
결단찬양	내 구주 예수님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주기도송		다같이
*축도		권성범 목사

\*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 오늘 본문 히 3:1-18 을 읽고 묵상합니다.

Before the sermon, read and meditate on today's Scripture.

구분	주제
1:1-4:13	그리스도의 인격의 우월성 The Superiority of the Person of Christ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종으로서 신실했던 모세보다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굳게 잡으면 그분의 집(가족)입니다.

We should pon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the faith, for he is more glorious as a son than Moses, who was faithful as a servant. We are his house (family) if we hold fast the confidence and boast of hope.

거룩한 형제들의 세 가지 삶의 태도 Three life attitudes of holy brothers.

- 1.
- 2.
- 3.

예수님과 모세의 신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us of Jesus and Moses?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할 때, 내 말과 행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How would my words and actions change if I pondered Jesus, God the Son, every moment of every day?

By 박상진(한동대 석좌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오늘날 우리나라 다음세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가정,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가정으로 연결되고, 학교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었고, 교회와 학교, 가정과 학교도 분리되었다. 교회와 가정의 분리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실 신명기 6 장 7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은 형성된다. 주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의 시간은 168 분의 1이다. 일주일의 시간 중 한 시간으로는 다음세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 한 주간의 삶 전체를 통해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와 학교의 분리는 신앙과 학업의 분리와도 연결된다. 학생들의 중요한 관심은 학업과 성적, 그리고 입시와 진로인데 교회 교육이 학교와 분리되어 이런 것들에 대해 무관심할 때 학생들의 삶과 괴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진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한다.

가정과 학교의 분리도 심각하다. 사실 부모에게는 자신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독교 가정이라면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영향받고 있는지를 주시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상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교회와 가정,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고 통합될 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추구할 수 있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은 애급의 교육, 바로의 교육을 연상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압제 속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고통 당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애급의 교육과 같은 교육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며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 부모들이 마치 모세처럼 다음세대를 왜곡된 교육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저마다의 온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저마다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떠오른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되어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라”로 끝나는 그 시를 읽으며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생각한다. 다음세대 교육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 세대의 교육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제 빼앗긴 다음세대 교육을 되찾아와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다음세대 교육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성경: 예레미야 11:1-28:17] 날짜:

이름:

▣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 “나(예레미야)는 끌려서 잡혀 가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렘 11: )
2. 예루살렘의 치마가 들리고 발뒤꿈치가 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 13: )
3. 누가 여호와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하였나요? (렘 15: )
4.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렘 17: )
5.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에서 함께 가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렘 19: )
6.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떨다”고 했나요? (렘 20: )
7.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역대상과 열왕기하에 각각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나요? (렘 22: )
8. “여호와께서 그들(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나요? (렘 24: )
9. “내(여호와)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은 누구인가요? (렘 26: )
10. 누가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4년 7월에 죽었나요? (렘 28: )